

# 이젠 침묵 깨야 할 '페미니즘' 비평

## 사적 생활영역의 관심 증폭되면서 새롭게 주목

장미경

연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우리나라에서 여성문제나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7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70년대 이화여대에 여성학과가 개설되면서 학문적 접근이 시작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학생운동을 경험한 진보적 페미니스트들이 사회운동의 일환으로서 여성운동을 발전시키고자 여성운동 이론을 연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 여성운동 이론연구의 시작

당시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은 크게 두가지 흐름으로 이루어졌는데, 젊은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한 이론논쟁(성과 계급논쟁)과 여성학과, 여성개발원의 탄생을 필두로 한 연구가 한 축을 이루었고 '여성의 전화'나 '가정법률상담소' 등을 중심으로 한 기존 활동가들이 다른 한 축을 이루었다. 전자가 이론논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면 후자는 구체적 실천운동에 더 많은 애정을 보였다. 따라서 페미니즘 관련서적의 출간과 보급은 전자그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론적 논쟁(실상 다른 분야에 비하면 여성운동계에서의 이론논쟁은 상당히 미약한 것이었지만)을 주도했던 그룹들은, 당시 운동권의 당면과제였던 군부독재정치의 철폐와 노동자, 농민, 빈민에 관심을 기울였고 그런 사회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여성문제를 파악하면서 《여성》《여성과 사회》라는 무크를 출간해왔다.

다른 한편 지속적인 문화적 작업을 염두에 두고 무크를 계속 출간해온 <또하나의 문화>는 이전 운동권들의 관심사나 맥락과는 다른 차원에서 여성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쳤다.

90년대 들어서 소련 및 동구의 현실 사회주의권의 붕괴현상 이후에 급격히 쇠락한 듯한 마르크스주의, 경제 패러다임의 쇠퇴와 문화 패러다임의 부상, 포스트 모더니즘의 분위기를 속에서 여성운동계에서도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여성운동을 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과 페미니즘 관련서적의 출간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풍요로운 경제적 혜택을 받고 성장

한 신세대들이 이전의 기성세대들과는 다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과감하게 주장하면서 새로운 스타일을 구가하려는 경향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었다. 이로써 기성세대들의 집단주의적 공동체적 윤리와 대립되는, 개인주의적이고 개성을 중시하는 자신만의 삶에 대한 가치부여가 소중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그동안 사소한 것으로 여겨져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상생활과 사적인 생활 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한다.

나아가 박완서, 이경자, 양귀자, 공지영, 공선옥 등의 여성소설과 성공한 여자(전여옥, 배금자, 오숙희)들의 성공담도 여성문제를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데 일조하였다(물론 이들의 논조와 사상을 절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게다가 작년에 있었던 NGO 북경대회와 기혼여성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여성들에 대한 이해의 폭 확대 등의 요인은 일반인들이 페미니즘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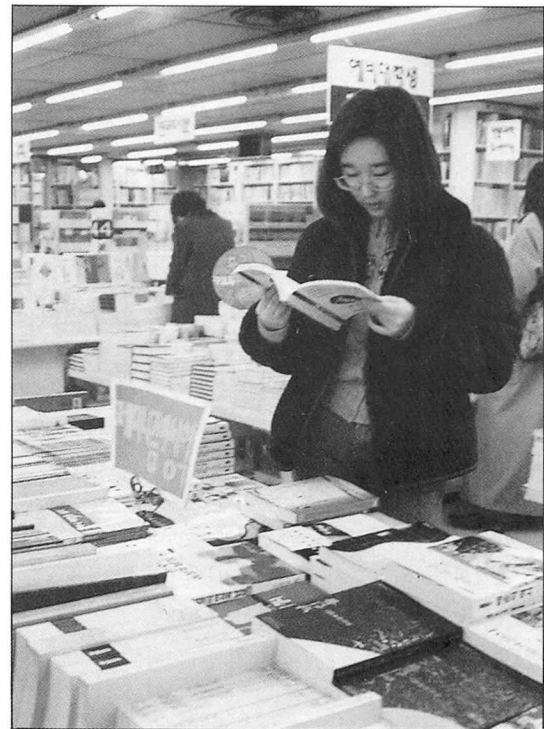
### 인간 전체의 해방에 관심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제까지 출간된 여성 관련 서적들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여성들이 불평등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여성들이 주체적 인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중서적들을 들 수 있다. 《일곱가지 여성 콤플렉스》, 《주머니 속의 여성학》《여자는 왜?》《암탉이 울면?》《열린 가족 속의 여성》《초보엄마 화이팅》 등의 책들인데, 이러한 책들은 여성이 차별받고 있는 현실과 그들의 고통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어 주는 책들이다. 여성문제를 다른 소설들이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끼이고 있는 현상이나 《일곱가지 여성 콤플렉스》《반쪽이의 육아일기》《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과 같은 대중서적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읽혀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상을 입증해주는 예이다.

80년대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대중서적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쉽게 여성문제를 인식시켜 주었다. 그러나 여성이나 가정, 탁아와 같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들 책의 경우 일반 사람들은 그 내용

이제까지 출간된 여성관련 서적들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여성문제의 대중적 관심을 끌어모으는 책들이 많고, 둘째는 세분화 다양화하는 경향이며, 셋째 우리의 현실을 분석하고자 하는 흐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최근 페미니즘 관련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그것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으므로 지나치게 가벼운 책보다는 관심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기획이나 좀더 깊이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담고 있는 대중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두번째 부류의 책들은 역시 외국이론이나 사상을 소개한 페미니즘 관련 학술서적을 들 수 있다. 페미니즘 학계를 선도해온 이 책들은 특히 작년에 상당히 많이 출간되어 1995년 북경대회의 여파를 실감하게 하고 있는데, 이전까지의 서적들이 페미니즘 이론이나 사상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총론 형식이 대부분이었다면, 지난 2년간에 걸쳐 나온 책들은 비교적 여성학과 관련한 각론 형식의 책들이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여성과 철학, 정치, 경제, 문화, 영화, 언어, 공간, 감정노동, 모성, 성폭력 등의 주제로 세분화되고 다양화된 책들이 출간되었다. 여성학도 전문화시대가 도래했다고나 할까. 여성문제에 대해 여성들 자신은 물론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면서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수준 높은 여성관련 논문과 번역서·편역서들이 출간되고 있다.

세번째 부류의 서적은 우리의 현실을 분석해보고자 하는 흐름이다. 사실 이러한 작업은 구체적 이론과 현실 분석,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 저술을 말하는데, 특히 페미니즘 관련서적들에서는 이러한 독창적

인 저술부분이 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승희의 페미니즘 이론과 운동관련 저서, 손봉숙의 북한 및 정치관련 저서, 심영희의 여성법 관련 저서, 김주숙의 여성농민 관련 저서, 조혜정의 문화기술지적인 여성관련 서적 등이 있긴 하지만 아직 그 수는 매우 적은 실정이며, 더욱이 그러한 역작들에 대해서 여성운동계 내에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대중성·현실성·전문화

남성 학자들이 가지는 영향력과 사회적 반향과 비교해볼 때 우리 여성계에는 너무나 침묵에 익숙해 있는 것 같다. 어떤 저서에 대해서는 칭찬도 없으며 냉혹한 비판도 없다. 논란이 없으므로 사회적 반향은 더더욱 없다. 이런 실정에서 몇년씩 혹은 수십년씩 걸려 노작을 만들어놓고 느끼는 허탈감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출판계 종사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최근에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떠드는 만큼 페미니즘 관련서적들이 잘 팔리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우리의 통념에 아직도 일상적이고 생활적인 것들은 사소한 것이며 진지하게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 글을 빌려 찬사든 질책이든 페미니즘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였으면 한다. ❖